12월 구역모임

봉사하기

❦ 1. 환영 Welcome

◎ 인사와 교제
◎ 감사와 나눔

❦ 2. 찬양 Worship

◎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212장)
◎ 성자의 귀한 몸 (찬216장)
◎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218장)

❦ 3. 말씀 Word

"44)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막10:44~45)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봉사와 관련해서 이 구절을 곱씹어 봅시다. 모든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금 면류관 은 면류관을 씌워 드리고, 그분께 성자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영광을 돌려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너희에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신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얻어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세상과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돌려 드린다고 하면서 신앙의 초점을 예수님께만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내 기분과 감정대로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의도대로 사랑해야 참사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해 불러 주셨을 때 그분 속에 있었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의도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너희를 부른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이 세상을 섬기라고 부른 것이다. 그렇기에 나에게 금 면류관 은 면류관을 씌워 주지 않아도 된다. 나는 그것 없이도 자족하고 넉넉하다" 이것이 주님의 진정한 의도입니다.

<u>예수님을 섬기는 일과 예수님이 관심하시는 세상과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u>.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자기의 시선도 함께 두기 때문입니다.

(1) 무엇이 진정 영적인 것인가?

▬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58:6)

성경에서 '금식'이라는 단어만큼 영적인 무게감을 가진 단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는 것이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는 것이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입니다.

영적 맥락에서 살펴보면 금식은 자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 중에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무조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금식이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음식을 스스로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금식은 자기 몸을 찢으며 하나님께 떼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곡기를 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을 주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들까지도 내어 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롬8:32) 그러므로 하늘 아버지 앞에 무엇을 얻기 위해 굶어 가면서 아뢰는 것은 그야말로 비상시국이 아니면 삼가야 하는 신앙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어느 날 식음을 전폐하고 내게 뭔가 요구하듯 두문불출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바짝 긴장해서 '내 자녀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밥도 안 먹고 내게 외치는 것인가?'하고 자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의 모든 신경이 그에게 집중됩니다. 그만큼 금식은 엄청난 영적 무게감을 가진 행동입니다. 하나님께 시위하는 것과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반드시 얻어 내겠다는 절박함 때문이고, 둘째는 원하는 것을 얻어 내기 위해 내 몸이 상하는 위험까지도 감수하겠다는 각오 때문이요, 셋째는 아버지의 마음을 무겁게 하면서까지 주님께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긴장시키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눌린 자를 흉악의 결박에서 풀어 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리는 자를 먹이는 금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2) 영생을 얻는 길

> "25)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26)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27)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2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29)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3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31)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33)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눅10:25~35)

우리가 익히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핵심은 "착하게 살라!"가 아닙니다. 즉 선한 행위를 권면하는 비유가 아닙니다. 이 비유의 주제는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이 비유인 것입니다. 즉 <u>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대주제는 선한 삶에 대한 권면이 아니요, 영생으로 향하는 길입니다</u>.

비유에는 네 사람이 나옵니다. 강도 만난 사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입니다.

먼저 제사장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기 직전인 사람을 보고는 피해 지나갔습니다(눅10:31). 이 대목에서 우리의 영적인 통찰이 필요합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길을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길바닥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거의 죽은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지켜야 하는 정결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시체와 접촉한 자는 부정하여 성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규례(레21:11~12)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 길을 가는 중이거나, 아니면 며칠 내로 성소에 들어가야 했을 수 있습니다. 거의 죽은 것 같은 사람의 처지는 안타까우나 제사장인 그의 입장에서는 부정한 그를 만져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은 자신의 거룩한 직분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 그를 피해 간 것입니다.

다음으로, 레위인도 같은 이유로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 지나갔습니다(눅10:32). 우리는 여기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단지 인정머리가 없어서 거의 죽은 것 같은 사람을 외면하고 피해 지나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도 전혀 연민을 느끼지 못하는 종교적 외식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조상들로부터 배워 온, 왕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충성과 종교적 열심을 지키기 위해 거의 죽은 것 같은 사람을 '어쩔 수 없이' 피해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피 묻은 사람을 외면해 지나간 것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가치관의 문제요,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세계관에 도전장을 던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이 놓치고 있었던 중요한 문제를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들은 종교 세계에 갇힌 나머지 인간의 고통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인이 지나갔습니다(눅10:33~34). 사마리아인은 거의 죽은 것 같은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갔습니다. 그의 모습은 쓰러진 사람을 피해 간 제사장 및 레위인과 극단적으로 대조됩니다. 그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주막 주인에게 그를 돌보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당시 하루 숙박비는 12분의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노동자가 받는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2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무려 24배나 준 것입니다. 그가 강도 만난 사람을 얼마나 정성을 다해 섬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혹시라도 돈이 부족하면 돌아와서 갚을 테니 먹을 것과 치료할 여러 가지 약들, 입고 갈 옷을 준비해 달라고 주막 주인에게 부탁했습니다.

> "35)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36)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눅10:35~36)

보십시오! 예수님이 질문의 강조점을 바꾸셨습니다. 29절에서 율법사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36절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율법사에게 이웃은 당연히 유대인으로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에게 이웃이란 신분과 계층과 환경에 따라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u>이웃은 '되어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이웃이 되어 주려고 할 때 이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u> 예수님은 당시 유대 사회의 이웃에 대한 통념을 깨시고 이웃을 새롭게 정의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겠느냐?"

>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눅10:37)

이 말씀 뒤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략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리하면 너도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영생과 구원을 전혀 새롭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살아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연약한 자의 이웃이 되어 주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는 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만났을 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헬라어 '스플랑크논'(splanknon)으로, 단순히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온정을 베풀 때는 쓰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 가지신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마9:35~36, "예수께서 …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갖고 계신 깊이를 알 수 없는 애정과 동정과 측은지심을 표현할 때에만 배타적으로 사용된 말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스플랑크논'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보면 가슴이 찢어지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 고통스런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며, 그를 배려해 주고 사랑해 줄 때 바로 거기에 영생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u>이처럼 기독교 신앙 안에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하나로 통합됩니다</u>.

봉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과 깊이 사귀는 것만을 '영적인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와 말씀은 영적인 것의 출발입니다. 반면 진정으로 기독교적인 영성은 '스플랑크논'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발걸음 속에서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게을리 한다면 이는 건강한 기독교 신앙이라 볼 수 없습니다.

(3) 흠이 없는 경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약1:27)

사랑보다 영적인 것은 없습니다. 교부 어거스틴은 온갖 잡다한 경건의 원리를 다 내려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하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세상과 그 속에 있는 모든 백성의 고통을 자기 것으로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신문지상의 한쪽 구석에 적힌 굶어 죽어 가는 아프리카 아이들의 소식이 단순한 기사가 아니라 아우성이 되어 귓전에 맴도는 사람은 영이 깊은 사람입니다. 비록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 존재하는 '영의 고통'을 통해 그들의 고통 속으로 몰입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처럼 위대한 것이 없고, 사랑처럼 영적인 것이 없습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 때때로 사랑과 종교적인 것들이 부딪히곤 합니다. 그때는 단호하게 사랑을 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호6:6)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선택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기뻐하실 일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과부와 고아를 그들의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금식, 영생, 경건, 이 세 단어만큼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무게감을 갖게 하는 단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단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세상과 그 속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일이라는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난하고 힘이 없고,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끌어 안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대단히 영적인 일입니다. 진정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신앙을 관념화하는 일을 지양하고, 머리와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손과 발로 연결해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영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 삶의 적용을 위한 나눔 ✚

(1) 기독교 신앙에서 진정으로 영적인 것은 무엇이라고 오늘 공과는 가르쳐 줍니까?

(2) '강도만난 자의 이웃'에 대한 이야기에서 어떤 것이 가슴에 와 닿는지를 한번 나눠 보시고, 이것이 오늘날의 신앙인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인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그 외 오늘 공과에서 받은 은혜, 도전, 격려, 위로 혹은 가르침이 있다면 나눠보시고 이를 어떻게 실천할지를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 4. 중보기도 Work

◎ 가정과 개인을 위한 기도
◎ 교회와 나라와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
◎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

☞ 합심기도 후 '주기도'로 구역모임을 마칩니다.